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 능력, 자발발화 특성과 자녀의 자발발화 특성 분석**

이 정 민**·박 혜 원***·배 성 봉****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IV. 논의

[초록]

15분의 자유놀이 상황에서 수집한 40쌍의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자발발화 특성을 평균발화길이와 문법적 형태소 사용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법적 형태소의 사용빈도는 낮았으며 MLU는 3.53(.84)이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MLU는 2.39(.79)였으며 한국아동의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과 어머니의 언어능력과 서술격조사, 용언접미사, 선어말어미간 사용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주제어: 자유놀이, 자발발화, 아동, 어머니, 다문화가정, MLU, 언어능력

I. 서론

21세기에 들어선 최근 한국 사회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인력을 유입하면서 국제결혼과 그 자녀의 증가로 빠른 속도로 변화가고 있는 세계화 시대가 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렇듯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99)

**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석사. child-ljm@hanmail.net

*** (교신저자)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hyewonc@mail.ulsan.ac.kr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itsmee@ynu.ac.kr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다. 다문화가정이란 한 가정 내에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 이상이 다른 언어 문화권의 배경을 가진 가정을 일반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국제결혼가정(한국인남성과 이주여성, 이주남성과 한국인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과 이주민가정(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2010)에 따르면 2010년 5월 외국계 주민의 수는 1,139,283명으로,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2.3% 수준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외국인의 비율은 더욱 늘어나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5%, 그리고 2050년에는 9.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장미혜, 김영옥, 김민정, 이민주, 2008). 이러한 다문화가정 비율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더 이상 동질적인 구성원을 가진 사회가 아닌 여러 인종과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하며, 국가의 비전을 위해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와 그 자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매우 시급하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언어와 한국문화를 익히는 것은 날마다의 삶이자 적응의 과정이다(우현경 외, 2009). 한국어는 한 개 이상의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단어를 구성하며,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가 결합하여 어절을 구성한다. 이렇듯 한국어는 많은 문법형태소를 내포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제2언어 학습자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신의 모국어의 구조와 다른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잘못 습득된 언어표현이 많고 이 표현들을 쉽게 고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문장오류가 많고 어휘력이 부족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대충의 의미만을 전달한다(김선정, 2007). 배현대(2010)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의사소통이며, 한국에 온지 6년 이상이 된 어머니들의 31.3%가 한국어 교육을 바라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수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2010년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121,935명이며, 만 6세 이하는 2010년 현재 76,776명으로 집계되는 현실이다(행정안전부,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녀교육문

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29%만이 자녀와 대화를 충분히 한다고 응답하였고 대화의 어려움으로 54.2%가 한국어 능력 부족을 들었다(이순형, 문무경, 최연실, 이숙정, 정하나, 우현경,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부모와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언어 및 생활문화와 교육기관에서 경험하는 언어 및 생활문화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가정 자녀와는 다른 발달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과 동시에 자녀를 출산하며, 양육에 대한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양육을 전담하게 된다. 그리하여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다문화가정 자녀는 아직 한국말이 서툰 어머니와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특성을 연구한 황상심(2008)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언어, 수용언어와 그림 어휘력이 낮게 나왔으며 그 중 30%는 약간의 언어발달지체 또는 언어발달장애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유승애(200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하여 평균 형태소 길이, 낱말의 길이, 평균 어절 길이, 어휘 다양도의 발달에 지체현상을 보였다고 한다. 이렇듯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취학 전에 풍부하지 못한 언어 환경으로 인해 언어 발달지체의 위험에 처해 있고 취학 후 학습부진의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며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에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경란, 2007; 설동훈 외, 2005; 오성배, 2005; 조영달, 2006; 홍영숙, 2007).

이렇듯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발달에 관련된 선행연구(김선정, 2007; 박미단, 2009; 박지윤, 2007; 유승애, 2009 등)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간의 언어 특성을 함께 연구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발발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와의 언어 발달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도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많은 형태소를 내포하고 있는 한국어 특징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자발발화 분석을 통해 형태소사용 양상을 수량화하여 살펴보고, 표현언어 발달의 지표인 평균발화길이(MLU-m)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특성(출신국가, 국내 거주기간, 교육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 능력을 분석하여 어

머니의 언어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축적하고자 한다. 거주기간과 교육수준 외에도 출신국가의 언어와 한국어의 특성간 차이는 어머니의 한국어 습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어머니의 언어능력과 자녀의 자발발화 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자녀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어머니입력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특성(출신국가, 교육기간, 취업유무,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 언어 능력과 자발발화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특성(출신국가, 교육기간, 취업유무, 한국거주기간) 및 자녀특성(성별, 연령, 출생순위, 형제유무)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발발화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언어능력 및 자발발화 특성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발발화 특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만1세-만5세 자녀이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N=40)

변인	구분	N	%
어머니의 출신국가	중국	5	12.5
	베트남	26	65.0
	캄보디아	5	12.5
	몽골	2	5.0
	필리핀	2	5.0
	합계	40	100.0

어머니의 한국거주기간	2-4년 미만	9	22.5
	4-6년 미만	13	32.5
	6년 이상	18	45.0
	합계	40	100.0
어머니의 학력	중졸 이상	17	42.5
	고졸 이상	17	42.5
	대졸 이상	6	15.0
	합계	40	100.0
어머니의 취업여부	비취업모	24	60.0
	취업모	16	40.0
	합계	40	100.0
자녀의 월령	9-24개월	9	22.5
	25-36개월	8	20.0
	37-48개월	8	20.0
	49-81개월	15	37.5
	합계	40	100.0
자녀의 성별	남아	22	55.0
	여아	18	45.0
	합계	40	100.0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	29	72.5
	둘째 이상	11	27.5
	합계	40	100.0
자녀의 형제 유무	형제 없음	20	50.0
	형제 있음	20	50.0
	합계	40	100.0

2. 연구도구

1) 자유놀이 상황녹화

Mahoney(1999)의 부모-아동 상호작용 행동평가척도(K-MBRS; Korean 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K-MBRS, K-CBRS(김정미, 2009)의 실험도구로 아동들의 놀이감(책, 장난감소꿉세트, 블록세트)을 지침에 따라 준비하였다. 어머니에게 평소에 자녀와 놀던 방식으로 자유롭게 놀도록 권유하였다. 모든 검사 장면은 캠코더(Sony DCR-SR47)로 촬영하였다.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능력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를 문해능력을 중심으로 측정하기 위해 조중열(출판중)의 읽기, 쓰기 학습장애 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어머니 언어 능력 검사

는 4가지로 단어읽기검사 90문항, 음절탈락검사, 끝소리탈락검사, 첫소리탈락검사 각각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언어능력 검사의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검사명	문항수 (총점)	설명
음절 탈락 검사	18	단어에서 탈락해야 할 소리를 빼고 나머지 음절을 말하는지 측정한다. 예를 들어, ‘코뿔소’에서 ‘코’를 빼면 ‘뿔소’가 된다. 3문항을 틀릴 경우에는 검사를 중단한다.
첫소리 탈락 검사	18	단어를 들려주고 표적 음소를 제대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강’에서 첫소리를 빼면 ‘앙’이 남는다. 연속해서 3문제를 틀릴 경우 검사를 중단한다.
끝소리 탈락 검사	18	단어를 들려주고 표적 음소를 제대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곰’에서 끝소리를 빼면 ‘고’가 남는다. 연속해서 3문제를 틀릴 경우 검사를 중단한다.
단어읽기검사	90	한글 단어 90개를 하나씩 아동에게 제시하고 아동에게 읽도록 요구한다. 연속해서 3개의 단어를 못 읽을 경우 검사를 중단한다.

3) 자발발화 특성 분석 도구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를 분석하기 위해 강승식(2002)의 한국어 정보처리 주요 분야인 전산언어학의 자연언어 문장을 분석하는 형태소 분석 프로그램(KLT2000, KML)을 사용하였다. 형태소 분석은 각 문장을 입력하면 여러 형태소들의 묶음이 표층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의 단어로부터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들을 분리하고 각 형태소의 품사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되어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승식(2002)를 참조하라.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놀이 장면에서 나타난 자발발화를 전사한 자료 중 전체 대상의 10%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 본 연구자와 언어치료전공자 한 명이 전사,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사용, 평균발화길이를 각각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자료의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전사에 대한 연구자와 평가자 간의 일치도는 .93,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사용과 평균발화길이 일치도는 둘다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 앞서 예비연구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 두 쌍을 임의로 선정하여 10~15분 정도 자유놀이상황속에서 녹화하여 연구절차를 확인하였다. 예비 연구는 2010년 11월에 실시되었으며, 예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 12월 1일~2011년 2월 28일 사이에 이루어졌고, 어머니와 자녀의 놀이 장면 촬영은 15분 정도 대상 자녀의 가정과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어머니 언어 능력 검사는 총 4가지로 한글읽기검사, 음절탈락검사, 끝소리탈락검사, 첫소리탈락검사로 구성이 되며 소요시간은 15분 정도였다. 검사가 마친 후,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관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여 기입하도록 하고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

1) 자발발화 전사 및 분석

어머니와 자녀의 자발적인 발화표본의 크기는 놀이상황에서의 총 발화를 기준으로 하였다. 자발발화 자료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놀이 장면녹화 후 1-2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어머니와 자녀의 자발발화는 김영태(2002)가 제시한 발화구분 원칙에 따라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정리된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사용은 강승식(2002)의 형태소분석기를 사용하여 김영태(2002)가 제시한 형태소 분류원칙을 참고로 분석하였고, 평균발화 길이(MLU-m)는 다음의 공식에 맞추어 산출하였다.

$$\text{평균발화길이}(MLU-m) = \text{각 발화 형태소수의 합} \div \text{총 발화의 수}$$

2) 통계 분석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를 산출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 언어능력, 자발발화 특성과 자녀의 자발발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 다문화가정 어머니 언어 능력과 어머니 및 자녀의 자발발화 특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어머니의 배경과 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 능력과 자발발화 특성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배경(출신국가, 교육수준, 취업유무, 한국거주기간) 등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능력과 자발발화특성(MLU 및 형태소사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만을 결과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한 표에서 형태소 요약기호는 다음과 같음을 알려둔다. N:체언, Z:관형사, 부사, V:용언, W:보조용언, J:조사, E:어말어미, C:서술격조사, T:용언접미사, F:선어말어미, S:체언접미사.

1) 다문화가정 어머니 출신국가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 능력과 자발발화 특성

어머니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T(용언접미사)는 필리핀($M=.03, SD=.02$), 캄보디아 출신($M=.03, SD=.01$)이 중국, 베트남, 몽골 출신($M=.01, SD=.01$)보다 높아 출신국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4, 35)}=3.92, p<.05$). 어머니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S(체언접미사)는 몽골 출신($M=.01, SD=.01$)외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출신은 모두 전혀 사용하지 않아 출신국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4, 35)}=2.94, p<.05$). 그러나 MLU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출신국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 능력과 자발발화 특성

어머니의 첫소리탈락검사수행은 대졸이상 집단($M=15.33, SD=3.33$)과 고졸이상 집단($M=10.35, SD=4.96$)이 중졸이상 집단($M=8.00, SD=5.30$)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F_{(2, 37)}=4.95, p<.05$). 어머니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J(조사)는 대졸 이상 집단($M=.12, SD=.02$)이 중졸 이상($M=.09, SD=.03$) 및 고졸이상($M=.09, SD=.02$)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학력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F_{(2, 37)}=4.54, p<.05$).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 능력과 자발발화 특성

어머니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N(체언)은 비취업모 집단($M=.33, SD=.06$), 취업모 집단($M=.29, SD=.04$)순으로 나타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2.10, p<.05$). 어머니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W(보조용언)는 취업모 집단($M=.01, SD=.01$), 비취업모 집단($M=.00, SD=.00$)순으로 나타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27, p<.05$).

2.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발발화 특성

어머니와 자녀의 특성에 따른 자발발화특성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만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른 자녀의 자발발화 특성

자녀의 자발발화 나타난 형태소 T(용언접미사)는 필리핀출신 어머니의 자녀($M=.03, SD=.04$), 캄보디아출신 어머니의 자녀($M=.02, SD=.03$),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출신 어머니의 자녀($M=.01, SD=.01$)가 몽골 출신 어머니의 자녀($M=.00, SD=.00$) 보다 높아 출신국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4, 35)}=3.55, p<.05$).

2) 어머니의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자녀의 자발발화 특성

자녀의 평균발화길이는 어머니의 한국거주기간이 6년 이상인 집단($M=2.81, SD=.66$), 2-4년 미만 집단($M=2.06, SD=.67$), 4-6년 미만 집단($M=2.03, SD=.79$)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2, 37)}=5.92, p<.01$).

자녀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Z(관형사, 부사)는 어머니의 한국거주기간이 2-6년 미만인 집단($M=.33, SD=.30$)이 4-6년 미만 집단($M=.23, SD=.13$), 6년 이상 집단($M=.14, SD=.06$) 보다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2, 37)}=3.99, p<.05$). 형태소 J(조사)사용은 6년 이상 집단($M=.09, SD=.02$)이 2-4년 미만($M=.06, SD=.04$), 4-6년 미만 집단($M=.05, SD=.03$)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_{(2, 37)}=5.31, p<.01$).

3) 다문화가정 자녀의 월령에 따른 자녀의 자발발화 특성

자녀의 월령에 따른 자녀의 자발발화 특성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자녀의 평균발화길이와 형태소사용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였다. 평균발화길이는 49-81개월 집단($M=2.81, SD=.70$), 37-48개월 집단($M=2.55, SD=.73$), 25-36개월 집단($M=2.22, SD=.62$)이 9-24개월 집단($M=1.68, SD=.64$)보다 유의하게 높아 월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F_{(3, 36)}=5.64, p<.01$).

자녀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Z(관형사, 부사)는 9-24개월 집단($M=.41, SD=.28$)이 25-36개월 집단($M=.17, SD=.05$), 37-48개월 집단($M=.16, SD=.10$), 49-81개월 집단($M=.14, SD=.05$)보다 높아 월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3, 36)}=7.44, p<.01$). 형태소 V(용언)의 사용은 37-48개월($M=.17, SD=.05$), 49-81개월 집단($M=.17, SD=.03$) 및 25-36개월 집단($M=.13, SD=.04$)이 9-24개월 집단($M=.06, SD=.05$)보다 높게 나타나 월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3, 36)}=13.88, p<.001$). 형태소 E(어말어미)는 37-48개월($M=.19, SD=.06$), 49-81개월 집단($M=.19, SD=.02$) 및 25-36개월 집단($M=.17, SD=.04$)이 9-24개월 집단($M=.07, SD=.06$)보다 높아 월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3, 36)}=15.59, p<.001$). 형태소 C(서술적조사), 형태소 F(선어말어미)도 25-36개월 집단($M=.02, SD=.02, M=.02, SD=.01$), 37-48개월과 49-81개월 집단($M=.02, SD=.01, M=.02, SD=.01$), 9-24개월 집단($M=.00, SD=.00, M=.01, SD=.01$) 순으로 25개월 미만의 아동과 더 나이든 아동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3, 36)}=3.04, p<.05$).

[표 3] 다문화가정 자녀의 월령에 따른 자녀의 자발발화 특성(N=40)

하위요인	9-24 개월 ^a N=8 M, SD)	25-36 개월 ^b N=13 M, SD)	37-48 개월 ^c N=9 M, SD)	49-81 개월 ^d N=10 M, SD)	합계 N=40 M, SD)	F	Scheffé	
평균 발화길이	1.68(.64)	2.22(.62)	2.55(.73)	2.81(.70)	2.39(.79)	5.64**	b,c,d>a	
N	.39(.24)	.42(.07)	.38(.10)	.36(.06)	.38(.13)	.48		
Z	.41(.28)	.17(.05)	.16(.10)	.14(.05)	.21(.18)	7.44**	a>b,c,d	
V	.06(.05)	.13(.04)	.17(.05)	.17(.03)	.13(.06)	13.88***	b,c,d>a	
W	.00(.00)	.00(.00)	.00(.00)	.00(.00)	.00(.00)	.85		
자녀 형태소	J	.06(.05)	.06(.03)	.07(.02)	.09(.02)	.07(.03)	2.47	
E	.07(.06)	.17(.04)	.19(.06)	.19(.02)	.16(.07)	15.59***	b,c,d>a	
C	.00(.00)	.02(.02)	.02(.01)	.02(.01)	.01(.01)	3.04*	b,c,d>a	
T	.01(.02)	.02(.02)	.00(.01)	.01(.01)	.01(.01)	1.84		
F	.01(.01)	.02(.01)	.02(.01)	.02(.01)	.02(.01)	5.59**	b,c,d>a	
S	.00(.00)	.00(.00)	.00(.00)	.00(.00)	.00(.00)	.92		

* $p<.05$, ** $p<.01$, *** $p<.001$

4)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자녀의 자발발화 특성

자녀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N(체언)은 둘째 이상인 집단($M=.45, SD=.15$)이, 첫째인 집단($M=.36, SD=.11$)보다 높게 사용하여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24, p<.05$).

3. 다문화가정 어머니 언어 능력과 어머니 및 자녀의 자발발화 특성간의 관계

어머니의 한글읽기검사수행은 어머니의 평균발화길이($r=.60, p<.01$), 어머니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J(조사)($r=.35, p<.05$) 사용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형태소 F(선어말어미)($r=-.43, p<.01$)사용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음절탈락검사수행은 어머니의 평균발화길이($r=.49, p<.01$) 및 형태소 J(조사)($r=.33, p<.05$), 형태소 S(체언접미사)($r=.37, p<.05$)사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끝소리탈락검사수행은 어머니의 평균발화길이($r=.51, p<.01$), 형태소 J(조사)($r=.48, p<.01$) 및 형태소 S(체언접미사)($r=.37, p<.05$)사용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형태소 F(선어말어미)($r=-.32, p<.05$)사용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첫소리탈락검사수행은 어머니의 평균발화길이($r=.46, p<.01$), 형태소 J(조사)($r=.56, p<.01$) 및 형태소 S(체언접미사)($r=.48, p<.05$)사용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형태소 F(선어말어미)($r=-.44, p<.01$)사용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 평균발화길이는 어머니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Z(관형사, 부사)($r=-.35, p<.05$) 및 형태소 F(선어말어미)($r=-.56, p<.01$)와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녀의 평균발화길이는 형태소 Z(관형사, 부사)($r=-.55, p<.01$)사용과 부적 상관을, 형태소 V(용언)($r=.74, p<.01$), 형태소 W(보조용언)($r=.35, p<.05$), 형태소 J(조사)($r=.59, p<.01$), 형태소 E(어말어미)($r=.75, p<.01$), 형태소 F(선어말어미)($r=.46, p<.01$) 사용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언어 능력과 자녀의 자발발화 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한글읽기검사수행은 자녀의 평균발화길이($r=.32, p<.05$)와 형태소 J(조사)($r=.39, p<.05$)사용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음절탈락검사수행은 자녀의 평균발화길이($r=.32, p<.05$)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끝소리탈락검사수행은 자녀의 평균발화길이($r=.31, p<.05$)와 자녀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W(보조용언)($r=.34, p<.05$)사용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첫소리탈락검사수행은 자녀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W(보조용언)($r=.31, p<.05$)사용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끝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자발발화특성간의 관계를 보면 평균발화길이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와 자녀 간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C($r=.83, p<.01$), 형태소 T($r=.63, p<.01$), 형태소 F($r=.33, p<.05$)사용간에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IV. 논의

먼저 어머니의 언어능력검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첫소리탈락검사수행에서 학력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J(조사)사용도 학력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학력은 언어능력검사의 수행이나 자발발화의 수준과 상관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어린 시기에 결혼하여 이민하여 높은 학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에서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국가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언어능력검사의 수행은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N(체언)사용은 비취업모 집단이 취업모 집단에 비해 형태소 N(체언)의 사용이 높았으며 형태소 W(보조용언)사용은 취업모 집단이 비취업모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많은 사람들과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언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언어적 상호작용 경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이정애, 1975).

그러나 거주기간에 따른 언어능력이나 자발발화특성간 차이는 없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하였다는 정순연(2008)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으나 어머니의 직업유무, 학력에 따라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는 상당히 일치한다.

어머니의 평균발화길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자녀의 평균발화길리와 비교한 결과, 자녀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언어 발달 과정에 있는 자녀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언어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평균발화길리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박은정

(2009)의 연구와 일치하며, 이는 자녀들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발화량이 늘면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발화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어머니의 평균발화길이(MLU-m)가 조금 줄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어머니가 어린 영아보다 나이가 많은 영아에게 말을 적게 한다는 Whitehurst(1988)과 Wells(1986)의 연구와 일치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사용을 살펴보면 N(체언)의 사용이 가장 높고, E(어말어미), V(용언), Z(관형사, 부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발화에 나타난 전체 어휘를 분류한 연구에서 전체 어휘 중 체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박은정(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발화에 나타나는 형태소 중 체언의 사용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체언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이고 지각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Gentner, 1982).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사용을 살펴보면, N(체언)의 사용이 가장 높고, Z(관형사, 부사), E(어말어미), V(용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품사 중, 명사, 동사, 조사 순으로 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박미단(2009)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박은정(2010)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화에 나타난 전체 어휘에서 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언어 보편적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 아동과 독일 아동의 이름대기 검사를 실시한 이해옥, 배소영(2004)의 연구에서도 명사의 수행능력이 높았고 언어 보편적 경향을 설명하였다. Gentner(1982)는 영어, 터키어, 만다린 중국어, 일본어, Kaluli어, 독일어를 배우는 유아들의 초기 어휘를 조사한 결과, 명사의 비율이 서술적 용어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초기 언어습득에는 명사의 사용이 지배적으로 많다는 언어 보편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명사 의미 부호화가 더 배우기 쉽기 때문에 유아가 명사를 먼저 습득하게 되며, 따라서 초기 어휘에서 명사가 지배적이라고 주장한 Gentner(1978)의 연구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월령에 따른 자녀의 평균발화길기와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V(용언), 형태소 E(어말어미), 형태소 C(서술격조사), 형태소 F(선어말어미)는 9-24개월 집단이 다른 월령 집단에 비해 평균발화길기와 형태소 V(용언), 형태소 E(어말어미), 형태소 C(서술격조사), 형태소 F(선어말어미)의 사용이 낮았다. 즉 자녀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평균발화길기가 길어졌다는 결과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형태소길이(MLU-m)가 매우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정은희(2004)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자녀의 월령이 높아지면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는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자녀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V(용언)의 사용이 증가하였다는 결과는 24개월을 전후로 용언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박은정(201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혜련, 이귀옥(2005)의 연구에서도 1세에 비해 2세 유아들이 동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는 문법형태소가 풍부한 언어로 언어습득에서 중요한 발달 과정이 된다(배소영, 1997).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법형태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된다(한효섭, 2003).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발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형태소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V(용언), 형태소 E(어말어미), 형태소 C(서술격조사), 형태소 F(선어말어미)의 사용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뒷받침해줄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도 일반가정 자녀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언어발달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발발화를 분석한 결과, 자녀의 월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Z(관형사, 부사)의 사용이 높게 나타났다. 즉 자녀의 월령이 낮을수록 지시관형사의 사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소영(1995)의 연구에서 언급한 대로 2-3세에 부사사용이 높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출생순위에 따른 자녀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N(체언)은 둘째 이상인 자녀의 집단이 첫째인 자녀의 집단에 비해 형태소 N(체언)의 사용이 높았다. 이는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자녀가 나이든 형제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장유경, 이근영, 광금주, 성현란, 2003).

참고로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평균발화길이(MLU-m)를 살펴보면, 일반가정 아동의 발달 기준(김영태, 2002)과 비교 가능한 아동 21명 중,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내에 있는 '정상범주' 3명, 1-2 표준편차내의 경우인 '약간 지체' 10명, 그리고 2 표준편차이상 차이가 있는 '지체의 가능성이 높음' 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유아가 일반 유아들에 비해 평균형태소길이(MLU-m)가 지체를 보여주었다는 유승애(200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일반가정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평균발화길이(MLU-m)를 비교한 박미단(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두 집단 간 평균발

화길이(MLU-m)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정은희(2004)의 연구에서도 전체 19명 중 13명의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의 발달 기준에 비해 평균형태소길이(MLU-m)가 ‘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능숙하지 못한 어머니로 인해 자녀가 풍부하지 못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의 언어습득을 위한 적합한 언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며,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에서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언어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 능력과 자녀 자발발화 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언어 능력 검사의 하위척도 중 한글읽기검사수행은 자녀의 평균발화길기와 자녀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J(조사)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음절탈락검사수행은 자녀의 평균발화길기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끝소리탈락검사수행은 자녀의 평균발화길기와 자발발화에 나타난 W(보조용언)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첫소리탈락검사수행은 자녀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W(보조용언)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언어 능력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자녀의 평균발화 길이가 길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 할수록 자녀도 한국어를 잘한다고 보고한 신혜정(2007)의 연구와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언어 능력이 높다고 한 정순연(2008)의 연구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조선족 아동 만1-3세 대상으로 평균발화길기를 분석한 전효정 외(2004) 연구에서도 자녀의 평균발화길이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의 언어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언어 능력이 자녀의 언어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발달을 위해 가장 먼저 어머니의 언어 능력을 증진시켜야 할 목표를 가지며 어머니와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언어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를 제한된 지역에서 표집 되었으며, 표집 대상 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자발발화 특성을 부분적인 분석으로 언어 전체

를 평가하는 데는 제한이 있으므로 좀 더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 공식적인 검사 도구를 병행하여 살펴보는 것도 적절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다양한 출신국가에 대한 표집이 적어 어머니의 관련변인에 따른 분석을 해석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아동의 연령과 한국 거주기간 등에 대한 통계가 이뤄지지 못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국적별 어머니의 대상수와 아동의 연령 등을 유사하게 하여 어머니의 배경요인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자녀들의 자발발화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발발화 특성 분석을 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 간의 놀이를 촬영상황으로 인식하여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여러 번의 반복 촬영을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관찰을 함으로써 어머니와 자녀의 발화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강승식(2002). 『한국어 형태소 분석과 정보 검색』. 흥릉과학출판사.
- 김경란(2007).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2007).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33, 423-446.
- 김영태(1997). “한국 2-4세 아동의 발화길이에 관한 기초연구,” 『말언어장애연구』, 2, 5-26.
- 김영태(2002).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학지사.
- 김정미·제럴드 마호니(2009). 『부모-아동 상호작용 행동 평가』. 박학사.
- 박미단(2009). “학령전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비교”. 나사렛 대학교 재할 복지대학원 언어치료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은정(2010). “어머니 언어입력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발달 과정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윤(2007).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언어발달 특징”.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소영(1997). “한국아동의 문법형태소 습득에 관한 연구: 조사 “가, 이, 는, 도, 를,” 『언어청각장애연구』, 2, 1-14.
- 배소영(1995). 『우리나라 아동의 언어발달: 진단의 일차적 자료. 언어치료전문요원교육』. 한국

언어병리학회.

- 배현대(2010).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현황과 문화 어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방안』. 보건복지부.
- 신혜정(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우현경·정현심·최나야·이순형·이강이(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0(3), 23-36.
- 유승애(2009). “4, 5, 6세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실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형·문무경·최연실·이숙정·정하나·우현경(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지원방안』. 농림부.
- 이정애(1975). “아동의 언어 발달의 인과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육·배소영(2004). “이름대기검사를 통한 학령 전 독일과 한국 아동들의 명사, 동사 발달에 관한 연구,” 『독일문학』, 92, 365-384.
- 이혜련·이귀옥(2005). “유아의 초기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간의 관계: 동사와 명사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205-216.
- 장미혜·김영옥·김민정·이민주(2008).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유경·이근영·곽금주·성현란(2003).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초기 어휘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27-241.
- 전효정·이귀옥·박혜원(2004). “초기 언어발달에 있어 환경적 영향의 특수성: 중국 조선족 아동의 가정환경에 따른 단어발달에서 어머니 언어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5(5), 163-178.
- 정순연(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유아 언어 능력과의 관계”. 한국 교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중열(출판 중). 『읽기/쓰기 학습장애 진단검사』. 에코의 서재.

- 한효섭(2003). “청각장애아동과 언어발달지체아동의 문법형태소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2010).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결과』.
- 홍영숙(2007). “다문화가정이 정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항상십(2008).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 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Gentner, D.(1978). “On relation meaning: The acquisition of verb meaning,” *Child Development*, 49, 988-998.
- Gentner, D.(1982). “Why nouns are learned before verbs: Linguistic relativity versus natural partitioning”. In S. A. Kuczaj II (ed), *Language development*, 2, 301-334. Hillsdale, NJ: Erlbaum.
- Mahoney, G.(1999). *The 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Revised*. Available from the author, Mandel School of Applied Social Sciences, 11235 Bellflower Rd., Cleveland, OH 44106-7164.
- Wells, G.(1986). *The meaning makers: Children learning language and using language to learn*. London: Hodder and Stoughton.
- Whitehurst, G., J., Falco, F. L., Lonigan, C. J., Menchaca, M. C., & Caufield, M.(1988).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rea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52-559.

■ Abstract ■

Multicultural Mothers' Language Skills, Language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Spontaneous utterance

JUNG-MIN LEE^{*****} · HYE-WON PARK^{*****} · SUNG-BONG BAE^{*****}

Forty multicultural mothers' language skills, language characteristics and those of children's during 15 min. of free play were analyzed in terms of grammatical morphemes and MLU. The use of grammatical morphemes was low in multicultural mothers and the MLU of multicultural mothers

^{*****} UNIVERSITY OF ULSA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UNIVERSITY OF ULSAN, CHILD AND FAMILY WELFARE.

^{*****} KYONGNAM UNIVERSITY, INSTITUTE FOR HUMA.

was 3.53(.84) The MLU of children with multicultural mothers was 2.39(.79) which is low compared with that of Korean children. Mothers' language abilities and use of particle endings, suffix for a declinable word, suffix before ending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ose of children's.

Key Words: free play, spontaneous utterance, children, mother, multi-cultural families, MLU, language abilities

■ 논문투고 : 2012년 4월 30일 논문심사 : 2012년 5월 15일~5월 31일 게재확정 : 2012년 6월 7일

